



스위스 재보험 2008년 1분기 순이익 6.24억 스위스프랑 기록  
 주당 순이익 1.84 스위스프랑  
 연간 자기자본이익률 8.5%  
 사업전반에 걸친 만족스러운 실적 보여

Contact: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Corporate Communications, London  
 +44 20 7933 3445

Corporate Communications, Asia  
 Telephone +852 2582 3660

Corporate Communications, New York  
 Telephone +1 212 317 5663

Investor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4444

Swiss Reinsurance Company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2008년 5월 6일, 취리히 – 2008년 1분기, 스위스재보험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6억 2천 4백만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이러한 순이익 감소는 지속적인 금융 시장 불안과 그에 따른 2개의 런오프 CDS 계약에 대한 8억 1천 9백만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추가적 시장 평가 손실로 인한 것이다. 1분기손해 보험 및 생명 보험 사업부는 예상 보다 높은 손해상황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실적을 달성했다. 주당순이익(EPS)은 1.84 스위스프랑, 연간 자기자본이익률은 8.5%를 기록했다.

스위스재보험의 2008년 1분기 순이익은 6억 2천 4백만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주당순이익(ESP)은 전년동기대비 52% 하락한 1.84 스위스프랑을 나타냈다. 연간 자기자본이익률은 2007년 1분기 17.1% 대비, 8.5% 수준을 보였다.

주주지분은 스위스프랑 대비 미국 달러의 평가절하와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한 시가평가의 영향 그리고 계속되는 주식 재매수로 인해 2007년 12월 31일 당시 보다 13% 하락한 278억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주당순자산은 10% 하락한 83.26 스위스프랑을 나타냈다. 스위스재보험은, 1분기 10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주식을 재매수 했으며 2008년 5월 2일 까지, 총 재매수 목표액 77억 5천 스위스프랑의 43% 이상을 달성했다.

손해보험 사업부는 견실한 실적을 유지했다. 영업이익은 2007년 1분기에 비해 6% 하락한 13억 스위스프랑을 기록했으며, 이는 배상책임 보험 분야의 실적 호조와 12억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안정된 투자수익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스위스재보험의 합산비율은 2007년 동기 대비 3.1% 포인트 상승한 96.9%를 기록하였으며 여기에는 인적 재해 손실 증가와 보험료 감소에 영향을 받은 재물 보험 분야의 실적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생명보험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강력한 호조세를 보였던 2007년 1분기에 비해 45% 감소한 4억 4천 9백만 스위스프랑을 기록했다. 2007년 인수한 Admin Re®, 변액 연금 및 장수형 보험 사업 부문의 성과는 우수했으나 이는 순실현투자이익 감소로 인해 부분적으로 상쇄되었다.

금융 서비스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은 14 억 스위스프랑이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8%를 기록하여 작년 1 분기대비 0.4% 포인트 상승하였다.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이 어려웠던 가운데, 2 개의 런오프(run-off) CDS 포트폴리오는 1 분기동안 8 억 1 천 9 백만 스위스프랑에 달하는 추가 시가평가의 손실을 낳았다. 비록 CDS 포트폴리오가 런오프(run-off) 상황에 있지만, 스위스재보험은 지속적으로 기초 증권에 시가 가치 변동에 노출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재보험의 최고경영자인 자크 애그랭(Jacques Aigrain)은 “끊임없는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사의 수익 창출 능력 및 주주 이익 최대화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의 자본 상황 및 보험 포트폴리오 모두 견실하다. 비록 도전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는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보험 심사의 질, 신중한 리스크 선택 및 경제적 이익 창출에 지속적으로 집중해 나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스위스재보험은 경기 주기 전반에 걸쳐 주당순이익 10%와 자기자본이익률 14%의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2008 년도 1 분기 실적과 함께 자사의 경제적 가치 경영 (EVM) 모델에 기초한 2007 년도 실적을 발표했다. EVM 은 스위스재보험이 기획, 가격책정, 사업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통합 경제 측정 및 운영 모델이다. 2007 EVM 결과는 [www.swissre.com/investorrelations](http://www.swissre.com/investorrelations) 에서 볼 수 있다.

편집자 주

## 스위스재보험

스위스재보험은 세계 최대의 다각화된 글로벌 재보험사 중 하나로 전세계 25 개국 이상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863 년 스위스 쥐리히에서 창립된 이래 기업과 기업발전에 중요한 위험 관리를 위한 금융 서비스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손해보험 상품, 생명보험 상품 및 관련 서비스 등의 전통적 재보험 상품과 더불어 보험 기반 기업금융 솔루션과 보완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사의 종합적인 위험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tandard & Poor's)로부터 ‘AA-’ 를, 무디스(Moody's)로부터 ‘Aa2’ 를, 에이엠 베스트(A.M. Best)로부터 ‘A+’ 를 각각 부여 받고 있다.

스위스재보험은 1913 년 처음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만 900 명 이상의 직원을 두고 있으며 그 지역 본부는 홍콩에 있다. 2006 년 스위스재보험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첫 사무소를 개설한지 50 년을 맞이했다.